

분단에 따른 경산시지지역 포교사들의 소속지역단 변경의 건

대구경북지역단에서 경산시지지역 7개팀중 5개팀은 경북으로, 2개팀은 대구로 갈라놓았는데,

대구 2팀중 지역봉사 불광팀은 은해사에 자체 지역봉사팀이 없는 관계로 은해사 사찰 행사때 마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층포교팀도 평시엔 불광사내에서 활동하지만 방학기간 불교학교나 템플스테이등은 은해사에서 함께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속팀원의 거주지도 대구 경북이 반반인데 일방적으로 미리 선을 그어 대구지역단으로 분류시켜 놓아 활동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사찰문화 송림팀은 송림사가 분명히 경북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대구지역단에서 이부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마디로 포교현장의 세부 실정도 파악 안된 탁상공론식 자의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경산시지지역 포교사들이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동화사와 은해사 포교국장스님을 설득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방안까지 제시한 공문을 포교원으로 발송하게 하고, 전국본사포교국장협의회의 결의까지 이끌어 내었는데도 정작 포교사단 본단이나 대구경북지역단에서는 포교원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미리 선긋고 규정만을 강조하고 원칙대로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포교사단 소임자들이 탁상공론식 규정만을 내세우지 말고 좀 더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포교사단 소임자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되며 또 이것이야말로 포교사단 정관에 명시한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위의식 보다는 포교활동을 지원한다는 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활동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반들이 같은 지역단에서 함께 모여 수행과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하지만 절실하고 간절한 바램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활동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적을 시켜 준다고 했다가 또 이적은 안되고 활동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두들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참고로 경산시지지역 2개 불교대학 100여명의 포교사들은 우리들의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포교사증을 반납하기로 전원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수행과 포교활동에 매진해야할 도반들이 2차 3차 행동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디 빠른 선처를 부탁드립니다.